

한국판 남성에 대한 양가적 태도 척도 타당화 연구

김 은 하[†]

김 현 지

아주대학교

여성에 대한 태도가 양가적인 속성(적대적인 태도와 온정적인 태도)을 지니는 것처럼, 남성
에 대한 태도도 양가적인 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여성혐오
대 남성혐오로 인한 성별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여성에 대한 태
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남성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측정하는 국내 척도가 부재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남성에 대한 양가적 태도 척
도’(The Ambivalence toward Men Inventory: AMI)를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표본 1(대학생 183명), 연구 표본 2(대학생 300명), 연구 표본 3(성인 317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개의 하위요인(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 16문항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렴타당도와 준
거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한국어판 남성에 대한 양가적 태도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Ambivalence toward Men Inventory: K-AMI)는 한국인에게 사용하기에 타당한 도구로 확인되었
다. K-AMI의 내적합치도도 .830~.917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남성에 대한 양가적 태도 척도, 요인구조, 타당화, 신뢰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은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율곡관 508호, Tel: 031-219-2747, E-mail: eunkim@ajou.ac.kr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남성들과 여성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심지어 물리적 충돌을 보이는 ‘여성혐오 대 남성혐오’의 이분법적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김정은, 최승미, 2019). 이러한 남녀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강남역 살인 사건, 이수역 폭행 사건, 미투 운동, 몰카 사건 등이 남녀혐오로 잘못 전개되면서 남녀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이종임, 홍주현, 설진아, 2019). 이후 현재, 2020년 시점에서 남녀갈등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잠잠해진 듯하지만, n번방 사건과 연이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가미래연구원 이 2017년 8월부터 1년 6개월간 온라인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 사람들이 주목한 사회이슈 중 남녀갈등(70.0%)이 이념갈등(14.8%), 세대갈등(5.1%), 노사갈등(4.5%), 지역갈등(5%)등의 다른 갈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담론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여성 혐오를 반영하는 ‘김치녀’, ‘된장녀’, ‘맘충’과 같은 신조어가 사용되고 있고, 여성혐오 프레임을 남성에게 반사하는 미러링(mirroring)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김정은 등, 2019). 이와 같은 성별 갈등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남성과 여성 개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발전이나 통합을 저해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필요한 시급한 실정이다(이재경, 2013).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남녀갈등의 원인을 사회·문화·경제적 요인과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녀갈등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 높은 실업률, 취업에 대한 경쟁, 높아진 여성의 교육 수준과 사회적 지위, 그

리고 남성 중심 위계구조의 붕괴로 인한 남성의 상실감, 분노, 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백승대, 안도현, 2017; 안상수, 김인순, 이정현, 윤보라, 2015). 즉, 과거에 비해, 한국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면서 기존의 남성중심사회에서 자란 남성들이 여성을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여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남성들의 여성 혐오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박무늬, 민혜영, 장태훈, 2019; 유계숙, 조선아, 강민지, 2017; 조선아, 유계숙, 2018). 이에 반해, 여성들의 경우, 성차별과 여성 혐오에 대응하고 남성 위주의 사회질서와 정책을 바꾸려는 과정에서 남성에게 대한 분노와 혐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대아, 2018).

이와 같이 여성혐오와 남성혐오가 심화되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여성 혐오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태도에 주목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전 연구들에서는,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느끼는 적대와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주목하였다(Glick & Fiske(1997)). 하지만,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여성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온정적인 태도를 포함한 양가적 속성이 존재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Glick, Diebold, Bailey-Werner, & Zhu, 1997). 또한, 과거와 같은 여성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차별주의는 줄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우호적인 것처럼 위장된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Sue, Capodilupo, Torino, Bucceri, Holder, & Esquilin, 2007), 여성에 대한 양가적 태도라는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Glick과 Fiske(1996)는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 이론을 제안하였는데, 이

이론의 핵심 가정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주의가 여성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 이하 HS) 그리고 여성에 대한 애정과 호의(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 이하 BS)라는 양가적인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이 남성의 권위나 영역에 침범하며 과도하게 여성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나 감정을 의미하는 반면에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을 보호하거나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등의 여성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나 감정을 의미한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겉으로는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감정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보다 미묘하고 간접적인 형태의 성차별로, 전통적인 성역할을 유지하는 여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함으로써 기존의 남성 중심 구조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더 나아가, Glick 등(1996)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에 따르면,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공통된 세 가지 구성요소(부성주의, 성역할 분화, 이성애)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적대적인 감정과 온정적인 감정이라는 두 가지 양상을 내포하는 양가적인 속성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부성주의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여성을 지배와 종속의 대상으로 여기는 지배적 부성주의(dominant paternalism)와 애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보호적 부성주의(protective paternalism)라는 양가적인 태도를 포함한다(Glick et al., 1996). 여기서 지배적 부성주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관련이 있는 반면 보호적 부성주의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관련이 있다. 둘째, 성역할분화는 남성의 역할

이나 특성이 여성의 역할이나 특성과 다르다는 것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적 우위를 차지한다는 경쟁적 성역할 분화(competitive gender differentiation)와 남성에게 부족한 양육이나 가사 노동 능력을 여성이 보완할 수 있다는 보완적 성역할 분화(complementary differentiation)를 포함한다(Eagly & Mladinic, 1994; Glick et al., 1996). 경쟁적 성역할 분화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보완적 성역할 분화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속한다. 셋째, 이성애도 양가적 속성을 내포하는데,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속하는 적대적 이성애(heterosexual hostility)는 남녀 관계에서 성은 여성이 선택권이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 영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성이 이를 잘못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속하는 이성애 친밀성(heterosexual intimacy)은 이성 관계가 행복감과 친밀감의 가장 핵심적인 원천으로, 이를 낭만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을 토대로 Glick 등(1996)은 여성에 대한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하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The Ambivalent Sexism Scale; 이하 ASI)를 개발하였다. ASI는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지배적 부성주의 대 보호적 부성주의’, ‘경쟁적 성역할 분화 대 보완적 성역할 분화’, ‘적대적 이성애 대 친밀한 이성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정하고, 이 6가지 구성 요소를 토대로 한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하는 11문항,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하는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Glick 등(1996)은, 6개의 세부연구를 통해, ASI의 요인구조 분석과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과 일치하게, ASI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라는 두 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이론과 일치되게, 3개의 하위요인(보호적 여성주의, 보완적 성역할분화, 친밀한 이성애)으로 구분된 반면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4요인 구조(상위 2요인, 하위 4요인)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후, 안상수 등(2005)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ASI는, 영어판 원척도인 ASI와 달리,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각각 3개의 하위요인을 갖는 6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여러 연구를 통해, 여성의 표본에서도 ASI가 2요인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Chapleau, Oswald, & Russell, 2007),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여성에 대해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가질 수 있음이 밝혀졌다. 즉, ASI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는 척도라는 것이다.

한편, 아직까지 남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여러 이론(예, 체계 정당화 이론(Jost & Banaji 1994), 사회정체성 이론(Tajifel, 1981), 사회지배성 이론(Sidanius & Pratto, 1999))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기존 사회 체계를 정당화하려는 동기가 강해 다수 집단(예, 남성)을 소수 집단(예, 여성)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다수 집단의 우월성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다수 집단인 남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남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수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는 예외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높은 사회적 지위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ske, Cuddy, Glick, & Xu, 2002; Nosek & Banaji 2002; Richeson & Ambady, 2001). 물론, 역사적으로 기득권을 차지해 온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남성에 대한 성차별주의 혹은 남성에 대한 성차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Jetten, Branscombe, Iyer, & Asai, 2013),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여전히 공존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Hellman & Wallen, 2010; Manzi, 2010; Vandello & Bosson, 2013).

남성에 대한 성차별주의의 존재성을 인정하든 부정하든, 여러 학자들은 남녀관계와 젠더문제 등을 더 명확하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남성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Stephan, Stephan, Demitrakis, Yamada & Clason, 2000). 특히, Glick과 Fiske(1999)는 여성에 대한 태도와 동일하게, 남성에 대한 태도도 양가적인 속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즉, 여성은 남성들이 자신들을 복종과 지배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이유로 남성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는 반면에 남성들을 여성의 애정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 여성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 그리고 여성에게 부족한 능력(예, 위기대처능력,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 등으로 인식하는 온정적 태도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Hostile Attitudes toward Men; 이하 HM)와 온정적인 태도(Benevolent Attitudes toward Men; 이하 BM)를 측정하기 위해, Glick 등(1999)은 남성에 대한 양가적 태도 척도(The Ambivalence toward Men Inventory; 이하 AMI)를 개발하였다. 앞서 밝힌대로, 남성이 성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AMI는 ASI와 달리 성차별주의가 아닌 양가적 태도라는 용어로 명명되었다. AMI는 남성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10문항과 온정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ASI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유사하게, 적대적인 태도와 온정적인 태도는 각각 동일한 세 가지 구성 요소(부성주의, 성역할 분화, 이성애)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AMI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부성주의는 적대적인 차원에서 남성 위주의 권력 구조와 문화에 대해 느끼는 분노를 의미하는 부성주의에 대한 적대감(resentment of paternalism; 예, ‘남자들은 언제나 사회에서 더 많은 주도권을 갖기 위해 싸운다’)과 온정적인 차원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여성의 애정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모성주의(maternalism; 예, ‘여자는 집에서 남자를 챙겨야 한다’)를 포함한다. 두 번째 구성 요소인, 성역할 분화는 적대적인 차원에서 남성을 여성보다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보상적 성역할 분화(compensatory gender differentiation; 예, ‘남성들은 아플 때 아이 같다’)와 온정적인 차원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부족한 긍정적 특성(예, 야망이 높음, 용감함)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상호보완적인 성분화(complimentary gender differentiation; 예, ‘남자들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이성애는 여성이 남성애에 대해 느끼는 가장 두드러진 양가감정의 원인으로,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이성애적 사랑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 중 하나이다(안상수 등, 2005). 남성애에 대한 여성의 이성애는 남성과의

관계를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친숙한 관계로 지각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이성애(heterosexual attraction; 예, ‘모든 여성은 사랑하는 남성이 있어야 한다’)가 온정적인 남성애에 대한 태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성애적 관계가 행복감과 친밀감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성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남성이 이성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며 성적으로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고 지각하면, 적대적 이성애(heterosexual hostility; 예, ‘권력이 있는 남자들은 여자들을 성적으로 괴롭힌다’)를 보일 수 있다.

Glick 등(1999)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AMI의 구조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1요인 모델, 단순 2요인 모델(남성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온정적인 태도가 각각 한 개의 요인으로 묶임), 복합 2요인 모델(남성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온정적인 태도가 각각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묶임) 중, 복합 2요인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lick 등(2004)은 남미 5개국(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페루), 유럽 6개국(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중동 2개국(시리아,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대만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AMI 문화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페루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복합 2요인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Glick과 동료들은 AMI와 기존 척도들과의 관계 및 남녀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Glick 등(1999)이 원척도 개발을 위해 실시한 세 개의 세부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애에 비해 남성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높고 남성애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SI의 경우, 남성이 여성애에 비해

높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낮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보인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안상수 등, 2005; Glick et al. 2004)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여성들은 여성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보다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남성들은 남성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보다 온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Glick 등(1999)의 세 개의 세부 연구 중, 한 연구에서 AMI의 두 하위 척도인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온정적인 태도간의 상관관계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남성과의 관계에서 지향하는 동기에 따라, 남성에 대한 분화된 태도(즉, 적대적인 태도 혹은 온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남녀 차이는 다른 두 세부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Glick 등(1999)은, AMI의 수렴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AMI와 기존의 남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기존의 남성에 대한 태도 척도는 Downs와 Engleson(1982)이 개발한 척도와 Iazzo(1983)가 개발한 척도였다. 이 두 척도는 남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AMI와 유사하지만, AMI와 달리, 적대적인/부정적인 태도나 온정적인/긍정적인 태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태도(예, “남성들은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진다”, “남성이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를 측정한다. Glick 등(1999)의 연구에서 AMI, Downs 등(1982)의 척도 및 Iazzo(1983)의 척도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Glick 등(1999)은 AMI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AMI와 ASI간의 상관관계도 살펴보았다. Glick 등(1999)은 AMI와 ASI가 각각 남성과 여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론적 개념 구성(부성주의, 성분화, 이성애)이 동일하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Glick 등(1999)의 연구에서, AMI 총점과 ASI 총점 그리고 AMI의 하위척도(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와 ASI(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간에는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Glick 등(1999)은 AMI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AMI가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남성에 대한 두 개의 형용사 쌍(예, 긍정적 형용사-부정적 형용사)으로 구성된 의미변별척도의 결과와 남녀의 긍정 및 부정 유인가(valuence)의 고정관념 특성에 대해 ‘100명의 남성 중 몇 명의 남성이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정한 결과)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에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는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AMI의 준거타당도 관련 결과는 남녀에서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

ASI는 안상수 등(2004)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후, 성차별주의가 한국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예, 김경희, 김은하, 2019; 김재은, 김지현, 2016; 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고재홍, 이선이, 최인철, 2005; 서윤정, 박지선, 2013; 이미나, 2019; 이승원, 서영석, 2018)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여성 혐오/남성 혐오 및 젠더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 뿐만 아니라 남성애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남성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 자체가 개발된 것이 없고, AMI가 여러 국가에서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로 검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AMI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AMI를 번역·역번역 과정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AMI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고,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수렴타당도, 준거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AMI의 타당도를 살펴보는 데 있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AMI 총점 및 하위요인 그리고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등에서 유의한 남녀 차이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Glick 등, 1999; Glick 등, 2004).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판 남성애에 대한 양가적 태도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Ambivalence toward Men Inventory; 이하 K-AMI)를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남성애에 대한 양가적 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역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청년층 남성들이 늘고 있고 남녀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AMI는 상담 장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특히, K-AMI를 사용하여 내담자가 어떤 차원의 남성애에 대한 태도(적대적인 태도, 온정적인 태도)가 높은지 탐색하고, 이에 따라 차별화된 상담 목표와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첫째, K-AMI의 요인구조는 어떠한가? 둘째, 한국어판 K-AMI의 수렴타당도와 준거타당도는 어떠한가? 셋째, K-AMI 평균점수에 있어 유의한 남녀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표본 1). 총 183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는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3.63(SD=2.97), 남성 83명(45.4%), 여성 100명(54.6%)이었다. 학년을 살펴보면, 1학년 8명(4.0%), 2학년 45명(24.6%), 3학년 45명(24.6%), 4학년 85명(46.4%)이었고, 전공은 어문계열 10명(5.5%), 인문계열 19명(10.4%), 사회과학계열 101명(55.2%), 경상·상경계열 22명(12.0%), 사범교육계열 1명(5%), 예체능계열 5명(2.7%), 자연과학계열 2명(1.1%), 공학계열 19명(10.4%), 법학계열 1명(5%), 의학/간호계열 3명(1.6%)이었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재확인

하고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표본 2). 총 300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는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3.72($SD=2.37$), 남성 150명(50.0%), 여성 150명(50.0%)이었다. 학년을 살펴보면, 1학년이 14명(4.7%), 2학년 66명(22.0%), 3학년 60명(20.0%), 4학년 160명(53.3%) 이었고, 전공은 어문계열 18명(6.0%), 인문계열 36명(12.0%), 사회과학계열 52명(17.3%), 경상·상경계열 52명(17.3%), 사범교육계열 7명(2.3%), 예체능계열 19명(6.3%), 생활과학계열 1명(0.3%), 자연과학계열 19명(6.3%), 공학계열 75명(25.0%), 법학 4명(1.3%), 의학/간호계열 17명(5.7%)이었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준거타당도 및 남녀별 평균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대상자를 일반 성인으로 확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표본 3).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이유는 AMI 관련 연구에서 20대와 30대, 대학생과 일반인간의 평균 차이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Glick 등, 1999). 총 319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는데, 이들의 평균 연령은 35.71($SD=8.53$), 남성이 150명(47.0%), 여성이 169명(53.0%)이었다.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초·중학교 졸업이 2명(0.6%), 고등학교 졸업 61명(19.1%), 대학교 졸업 195명(61.1%), 대학교 졸업 이상 61명(19.1%)이었다. 직업은 일반 사무/관리자 143명(44.8%), 영업직 30명(9.4%), 생산/노무직 10명(3.1%), 서비스직 20명(6.3%), 전문직 19명(6.0%), 자영업 4명(1.3%), 학생 58명(18.2%), 주부 34명(10.7%), 무직 1명(0.3%)이었다.

연구 절차

먼저, Peter Glick과 Susan T. Fiske로부터 AMI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연구자들이 세 차례의 번안 및 수정 과정을 거쳐 한국어로 번안하고, 영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중언어 사용자(초등학교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미국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한인 1.5세대)가 역번역을 실시하였다. 역번역된 척도와 원척도를 대조하면서 문항의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독성을 높이도록 세 차례에 걸쳐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K-AMI의 요인구조, 신뢰도, 타당도 및 남녀별 평균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세 개의 세부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 및 전공 수업을 수강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K-AMI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 2에서는 전문 온라인 조사 회사를 통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통해, K-AMI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수렴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셋째, 전문 온라인 조사 회사를 통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준거타당도 및 남녀별 평균차이를 살펴보았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K-AMI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Glick와 Fiske(1999)가 영어판 원척도의 타당화 과정에서 사용한 Iazzo(1983)의 남성에 대한 태도 척도와 K-ASI를 사용하였다. 또한 Eagly와 Mladinic(1989)이 젠더관련 고정관념과 태도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사용한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우울 척도를 사용하여 K-AMI의 준거타당도를 살펴보았다. K-AMI와 우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이유는 아직까지

남성에 대한 태도가 어떤 심리적 문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지만, 일부 연구를 통해, 여성에 대한 성차별주의가 높으면, 여성의 경우, 보수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반추가 높고, 자기효능감이 낮아 우울에 취약한 반면, 남성의 경우,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우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Barreto, Ellemers, Piebeinga, & Moya, 2009; Dumont, Sarlet, Dardenne, 2010; Jezzini, 2003; Renzetti, Lynch, & DeWall, 2015; Yoder & Lawrence, 2011).

남성에 대한 양가적 태도 척도

Glick과 Fiske(1999)가 개발한 AMI는 총 20문항, 2개의 하위척도(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온정적인 태도는 각각 공통된 세 가지 요소인 부정주의, 성분화, 이성애(‘부성주의에 대한 적대감 대 모성주의’, ‘보상적 성분화 대 상호보완적인 성분화’, ‘적대적 이성애 대 친밀한 이성애’)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에 대한 적대적 태도 혹은 온정적 태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830~.917로 나타났다.

남성에 대한 태도 척도

K-AMI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Iazzo(1983)가 개발하고 본 연구자가 번역-역번역을 통해 한국어로 번안한 남성에 대한 척도(Attitude toward me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7문항, 4개의 하위요인(결혼 및 부

표 1. 각 표본별 K-AMI 척도 및 하위척도별 내적합치도(Cronbach’s α)

	표본		
	1	2	3
K-AMI 전체(16문항)	.885	.887	.888
HM(6문항)	.890	.830	.831
BM(10문항)	.917	.912	.911

주. HM=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BM=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

모됨, 섹슈얼리티, 일, 신체적 및 성격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는 결혼 및 부모됨과 일을 측정하는 두 개의 하위요인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1=매우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태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91로 나타났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

K-AMI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Glick과 Fiske(1996)가 개발하고 안상수 등(2005)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orean version of Ambivalent Sexism Scale; 이하 K-AS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 2개의 하위요인(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에 대한 적대적 성차별주의 혹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950, 온정

적 성차별주의 .879로 나타났다.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K-AMI의 준거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측정하였다. 첫째, Spence, Helmreich와 Holahan(1979)이 개발하고 본 연구자가 번역-역번역을 통해 한국어로 번안한 개인적 태도 질문지 확장판(Extended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EPAQ)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남성이 긍정 및 부정 유인가(valence)의 고정관념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평정하게 한다(예, ‘독립적인’이라는 고정관념 특성에 대해 “100명의 남성 중 몇 명이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평정하게 함). 긍정적인 고정관념 특성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고정관념적 특성을 가진 남성이 많다고 평정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남성에 대한 감정 온도(0=매우 따뜻하다~99: 매우 차갑다)를 측정하였는데, 감정 온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강함을 의미한다.

우울 척도

K-AMI의 준거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 4개의 하위요인(우울 감정, 신체 및 행동 둔화, 긍정 정서, 대인 관계적 우울 정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없다, 5=아주 심하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

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23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2.0와 AMOS 2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표본 1을 대상으로 주축요인법과 직접 오블리민 사각회전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부하량이 .40미만이거나 둘 이상의 요인에서 요인부하량 .32이상을 보이는 문항을 삭제하였다. 둘째, 표본 1의 표본 크기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본 2의 자료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셋째, 표본 3을 대상으로, Glick 등(1999)이 원척도 개발 연구에서 실시한 방법과 동일하게,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1요인 모델, 단순 2요인 모델, 복합 2요인 모델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홍세희(2000)에 따르면, 표본 크기에 영향을 덜 받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 TLI가 .90이상,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RMSEA가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하이면 보통 적합도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K-AMI의 하위척도인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표본 전체, 남성 및 여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넷째, 표본 2를 대상으로, K-AMI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남녀별로 Iazzo(1983)가 개발한 남성에 대한 태도 척도 및 K-AMI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섯째, 표본 3을 대상으로, K-AMI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남녀별로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적 태도 및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온도)와 우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마

표 2. K-AMI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번호	번호		표본 1			표본 2		
			요인 1	요인2	h ²	요인 1	요인2	h ²
1	1	남자들은 언제나 사회에서 더 많은 주도권을 갖기 위해 싸운다.	.451	.156	.406	.423	.128	.376
2	2	감수성을 가진 남자들조차도 전통적인 남녀관계를 원한다.	.564	.221	.505	.572	.243	.521
3	-	남자들은 말로는 평등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343	-.084	.303	.317	.002	.253
4	-	대부분의 남자들은 정말로 아이 같다.	.312	-.084	.262	.324	-.017	.301
5	3	남자들은 자신을 이끌어 줄 여자가 없으면 갈피를 잡지 못한다.	.692	.332	.608	.698	.281	.633
6	4	남자들은 아플 때 아기처럼 행동한다.	.646	.239	.534	.629	.213	.506
7	-	권력이 있는 남자들은 여자들을 성적으로 괴롭힌다.	.290	-.115	.243	.301	-.003	.255
8	-	남자들은 성관계를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행동도 한다.	.346	-.044	.317	.319	.071	.299
9	5	남자들이 여자를 “뺨치는” 이유는 자신이 여자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704	.113	.629	.722	.093	.687
10	6	남자들은 여자와 대화 할 때 주도권을 가지려고 한다.	.728	.156	.563	.738	.131	.608
11	7	둘 다 직업이 있어도 여자는 집에서 남자를 챙겨야 한다.	.296	.706	.603	.224	.709	.615
12	8	남자는 여자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274	.623	.447	.203	.645	.493
13	9	여자는 집에서 남자를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자는 제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221	.804	.689	.206	.794	.701
14	10	남자들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006	.779	.673	.01	.783	.697
15	11	남자는 여자보다 위험을 더 감수하려고 한다.	.015	.624	.618	.011	.632	.620
16	12	남자는 여자보다 위기상황에서 덜 우왕좌왕한다.	.005	.656	.548	.015	.631	.594
17	13	모든 여자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자 파트너가 필요하다.	.074	.620	.489	.084	.614	.472
18	14	여자는 사귀는 사람이 없으면 충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143	.819	.706	.101	.825	.724
19	15	모든 여성은 사랑하는 남성이 있어야 한다.	.094	.815	.764	.115	.802	.722
20	16	여성은 남자 없이는 불완전하다.	.137	.828	.773	.152	.831	.789
고유값			2.699	6.441		2.773	6.527	
설명량(%)			13.977	37.553		14.235	37.699	

주. 요인 1=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Hostile Attitudes toward Men; HM); 요인 2=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Benevolent Attitudes toward Men; BM); 1) 원척도인 AMI의 문항 번호를 나타낸다. 2) K-AMI의 문항번호를 나타낸다.

지막으로, 표본 3에서, t 검증을 통해, 성별에 따라 K-AMI의 평균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결 과

K-AMI의 요인구조 확인

탐색적 요인분석

먼저, 표본 1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KMO(Kaiser-Meyer-Olkin)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KMO 측도는 .872, Bartlett의 구형성 지표는 $\chi^2=2228.410(p<.001)$ 로 나타나,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축요인법과 직접 오블리민 사각회전 방법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Mardia's test를 실시한 결과, 자료가 다변량 정상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현철, 2013; 서원진, 이수민, 김미리혜, 김제중, 2018; Costello & Osborne, 2005), 단순한 요인 패턴의 경우, 각 상관관계에 다르게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본 변동성을 가지는 최대 우도법에 비해 모든 잔차에 균등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값을 산출하는 추축요인법이 우수한 추정 방법이기 때문이다(De Winter & Dodou, 2012). 또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값, 스크리 도표, 평행분석의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이 3개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스크리 도표에서는 2번째 요인 이후 고유값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평행분석 결과도 2요인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과 원척도의 하위 요인이 2개라는 점, 해석가능성 모두를 고려하여 K-AMI의 요인 수를 2개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요인 수를 2개로 고정하고, 주축요인법과 직접 오블리민 사각회전 방법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이 .40미만이거나 둘 이상의 요인에서 요인부하량 .32이상을 보인 문항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3번 문항("남자들은 말로는 평등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4번 문항("대부분의 남자들은 정말로 아이 같다"), 7번 문항("권력이 있는 남자들은 여자들을 성적으로 괴롭힌다"), 8번 문항("남자들은 성관계를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행동도 한다")의 요인부하량이 .40미만 것으로 나타나, 이 문항들을 삭제하였다.

또한 표본 1의 크기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본 2의 자료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연구 1에서 나타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가 재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1과 동일하게, 연구 2에서도 2요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번 문항, 4번 문항, 7번 문항, 8번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40로 삭제할 문항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 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요인 1에는 원척도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의 10문항 중 6문항이 포함되었고, 요인 2에는 원척도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의 모든 10문항이 동일하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정된 2요인, 16문항의 내용과 요인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은 원척도의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의 10문항 중 6문항이 포함되어, K-AMI에서도 동일하

계 요인 명을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2.699로 전체 변량의 13.977%를 설명하였다. 또한 요인 2는 원척도의 ‘남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10문항이 모두 포함되어 K-AMI에서도 동일한 요인 명을 유지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6.441로 전체 변량의 37.553%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의 전체 점수와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들의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는 .40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다음으로, 표본 3의 자료를 토대로, Glick 등 (1999)이 원척도 개발 연구에서 실시한 방법과 동일하게, 1요인 모델, 단순 2요인 모델, 복합 2요인 모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한 대로, 복합 2요인 모델이 1요인 모델과 단순 2요인 모델에 비해 더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χ^2 검증을 통한 모델 비교 결과도 $p < .001$ 수준에서 복합 2요인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K-AMI	적합도지수				
	χ^2	df	CFI	TLI	RMSEA
1요인 모델	1078.812	104	.621	.562	.182(.162 ~ .209)
단순 2요인 모델	537.390	103	.827	.799	.120(.110 ~ .130)
복합 2요인 모델	326.113	97	.916	.896	.079(.069 ~ .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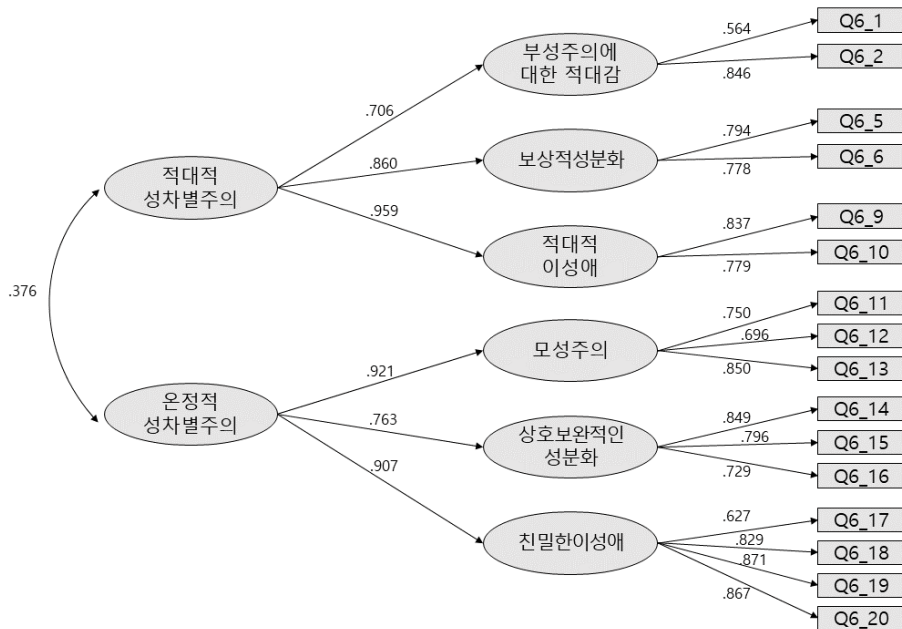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복합 2요인 모델의 적합도는 CFI, TLI의 경우 .90을 넘거나 .90에 근접한 수준이고, RMSEA는 .05~.08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합 2요인 모델이 수용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564~.871로 나타났으며, 95% 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복합 2요인 모델, 16문항으로 K-AMI를 구성하였다.

K-AMI의 하위척도간의 관계

K-AMI의 하위척도인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의 경우 .218~.306으로 나타났다. 또한 HM와 BM척도의 상관은 3개 표본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일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AMI의 타당도 검증

수렴타당도

표본 2를 사용하여, K-AMI의 수렴타당도를

표 4. K-AMI 하위척도별간의 상관관계

	표본		
	1	2	3
전체	.218**	.300***	.306***
남성	.688***	.681***	.548***
여성	.189**	.205**	.264**

주. ** $p < .01$; *** $p < .001$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K-AMI 총점, 남성에 대한 적대적 태도 및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는 Iazzo(1983)의 남성에 대한 태도 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는,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통제한 후에는, Iazzo(1983)의 남성에 대한 태도 척도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K-AMI와 K-ASI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를 통제한 후에는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434에서 .191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성의 경우,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의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성과 여성의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온정적인 태도를 통제했을 때, 여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상관이 유의하지 않거나 약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남녀 모두에서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남성에 대한 온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여성에 대해 적대적 및 온정적 태도를 모두 가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준거타당도

표본 3의 자료를 사용하여, K-AMI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의 통제 여부와 상관

표 5. 수렴타당도 분석

	Iazzo(1983)의 남성에 대한 태도	K-ASI 총점	HS	BS
남성				
K-AMI 총점	.672***	.704***	.484***	.672***
HM	.732***	.603***	.434***	.554***
BM	.556***	.677***	.454***	.659***
HM(BM통제 후)	.580***	.264**	.191*	.391***
BM(HM통제 후)	.116	.455***	.240**	.462***
여성				
K-AMI 총점	.442***	.702***	.544***	.669***
HM	.702***	.309***	.108	.424**
BM	.389***	.724***	.656***	.596***
HM(BM통제 후)	.701***	.237**	-.036	.384***
BM(HM통제 후)	-.079	.709***	.652***	.574***

주. HS = 적대적 성차별주의; BS = 온정적 성차별주의; HM =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BM =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 * $p < .05$; ** $p < .01$; *** $p < .001$

표 6. K-AMI의 준거타당도 분석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우울
	고정관념적 태도	감정온도	
남성			
K-AMI 총점	.031	.108	.168*
HM	.279**	.269***	.249**
BM	-.165*	-.335***	.093
HM(BM통제 후)	.412***	.346***	.238**
BM(HM통제 후)	-.334***	-.461***	-.053
여성			
K-AMI 총점	.123	-.009	.327***
HM	.513***	.338***	.309***
BM	-.160*	-.230**	.234**
HM(BM통제 후)	.572***	.424***	.263**
BM(HM통제 후)	-.320***	-.351***	.137

주. HS = 적대적 성차별주의; BS = 온정적 성차별주의; HM =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BM =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 * $p < .05$; ** $p < .01$; *** $p < .001$

없이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에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는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의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즉, 남성과 여성의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일반적으로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적 태도와 감정온도와 관련이 있는 반면에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는 남성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과 감정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 표본 모두에서 K-AMI와 우울간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특히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높은 수준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K-AMI의 남녀간 비교

마지막으로, 표본 3의 자료를 토대로, 남녀간 평균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남성에 대한 양가적 태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가 강한 반면에 여성이 남성보다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최근 한국 사회에서 성별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태도나 행동에 대한 연구는 많은 반면에 남성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Glick과 Fiske(1996)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성차별주의가 여성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애정과 호의라는 양가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처럼, 남성에 대한 태도도 적대적인 태도와 온정적인 태도가 공존하는 양가적인 속성을 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Glick과 Fiske(1999)가 개발한 AMI를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적도 AMI와 동일하게, K-AMI도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원적도 AMI의, 20개 문항 중,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에 속하는 4개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40 미만으로 나타나 K-AMI에서는 이 문항들이 삭제되었다. 구체적으로, 삭제한 문항을 살펴보면, 먼저, 두 문항(“권력이 있는 남자들은 여자들을 성적으로 괴롭힌다”와 “남자들은 성관계를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행동도 한다”)의 경

표 7. K-AMI의 HM, BM 평균점수에서의 남녀차이

	평균(표준편차)		t
	남성	여성	
K-AMI	45.486(13.322)	41.414(13.486)	2.707**
HM	17.086(5.411)	19.147(6.582)	-3.032**
BM	28.400(9.565)	22.266(10.163)	5.530***

주. HM =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BM =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 ** $p < .01$; *** $p < .001$

우, 남성들이 여성에게 보일 수 있는 성관련 행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두 문항이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의 다른 문항들과 낮은 상관을 보인 이유는, 좀 더 관련 연구가 필요하지만, 최근 미투 운동, n번방 등으로 인해 남성들의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문항을 더 심각하기 해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두 문항의 평균은 3.647과 3.659로, 다른 문항들의 평균(2.657~3.26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두 문항(‘대부분의 남자들은 정말로 아이 같다’와 ‘남자들은 말로는 평등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도 삭제되었는데, 그 이유는 먼저, 전자의 경우, 다른 문항에서는 ‘남자들이’ 혹은 ‘남자는’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반면에, 이 문항에서는 ‘대부분의 남자들은’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참여자에 따라 ‘대부분’을 다르게 해석해 이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자들이 ‘아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참여자라 하더라도, 모든 남자들이 ‘아이 같다’라고 생각하거나 일부 남자들이 ‘아이같다’라고 생각하면 이 문항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후자의 경우, 한 문항에서 두 가지 다른 태도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즉, ‘남자들은 말로는 평등을 원하다’와 ‘실제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중 어느 쪽을 동의하는가 혹은 둘 다 동의하는가에 따라 이 문항에 대한 평정이 달라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16문항으로 구성된 K-AMI의 요인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1요인 모델, 단순 2요인 모델(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남성에 대한 온정

적인 태도가 각각 한 개의 요인으로 묶임), 복합 2요인 모델(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가 각각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묶임)을 비교·분석한 결과, 복합 2요인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척도 AMI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Glick 등, 1999)와 Glick 등(2004)이 실시한 문화 비교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K-AMI는 2요인, 16문항, 더 나아가, 2요인은 각각 3개의 하위요인(부성주의, 성분화, 이성애)으로 구성된 척도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셋째, K-AMI의 두 하위요인(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상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좀 더 분화된 형태로 남성에 대해 생각하는 반면 남성들은 적대적인 태도와 온정적인 태도를 모두 수용하거나 모두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표본을 대상으로 한 Glick 등(1999)이 실시한 세 개의 세부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로, 이 중, 한 연구에서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온정적인 태도간의 상관관계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른 두 연구에서는 성별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ASI의 하위 척도인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간의 상관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낮다고 보고한 Glick 등(1996)의 연구와 비슷한데, 그 이유에 대해, Glick 등(1999)과 Glick 등(2000)은, 남성의 경우, 여성과의 관계에서 지향하는 동기(예, 지배적 동기 혹은 친밀 동기)에 따라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

주의의 분화가 많이 일어나 적대적 혹은 온정적 태도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해석을, 본 연구의 결과에 적용해보면, 여성들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지향하는 동기(예, 독립 동기 혹은 의존 동기)에 따라 남성에 대해 적대적 혹은 온정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온정적인 태도간의 상관관계가 낮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별에 따른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의 평균 차이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강한 반면에 남성이 여성보다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집단 선호(in-group favoritism), 즉, 사람들은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Hewstone, Rubin, & Willis, 2002). 또한 최근 남성 위주의 사회질서와 정책에 대한 한국 여성들의 분노와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박대아, 2018)과 그 맥을 같이 하며,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에 남성을 여성의 애정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태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는 고정관념적인 시각으로 여성도 보고 있음(예, 여성은 남성에게 애정과 돌봄을 주어야 한다)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넷째,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K-AMI 총점,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는 모두 Iazzo(1983)의 남성에 대한

태도 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K-AMI의 수렴타당도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의 경우,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통제 한 후에는, 남성에 대한 태도 척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Iazzo(1983)가 남성에 대한 태도 척도를 개발하면서, 이 척도에서 측정하는 남성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 혹은 긍정적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문항이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특히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Glick 등, 1999), 예상된 결과이다. 또한 기존의 남성에 대한 태도 척도가 양극단에서 한쪽의 차원(예, 부정적인 태도)만 측정하는 반면에 K-AMI는 양쪽 모두(적대적인 태도, 온정적인 태도)를 측정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다섯째, K-AMI와 K-ASI가 동일한 개념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Glick, 1999), K-AMI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K-ASI와의 상관관계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척도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에 대한 양가적 태도가 강할수록, 여성에 대한 양가적 성차별주의도 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 표본에서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K-AMI의 하위요인(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과 K-ASI의 하위요인(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적대적 성차별주의간에는 유의하지 않거나 약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Glick 등(1999)이 설명한 바와 같이, 남성에 대한 적

대적인 태도는 가부장적 사회제도와 남녀의 지위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반면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가부장적 사회제도와 남녀의 지위 차이를 정당화(예, “남자의 권위가 여자보다 큰 가정이 안정적이다”, “중요한 뉴스는 여자 아나운서보다 남자 아나운서가 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하는 태도를 측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섯째, K-AMI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K-AMI 총점이 남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고정관념, 감정온도)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체적으로, 남성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및 남성애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와 남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니, 남성애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남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반면에 남성애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성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남성애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가 남성애에 대한 상반되는 태도, 즉, 양가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하위요인임을 재확인하는 결과로, K-AMI의 준거타당도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K-AMI의 준거타당도 분석을 위해, 우울과의 상관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K-AMI 총점과 남성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우울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반면에, 남성애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는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나 남성이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가질수록, 자기효능감, 반추 혹은 대인관계 문제로 인해 우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Barreto, Ellemers, Piebeinga, & Moya, 2009; Dumont, 2010; Renzetti, Lynch, & DeWall, 2015; Yoder &

Lawrence, 2011)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아직까지 남성애에 대한 태도가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확인된 K-AMI, 특히 남성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우울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은 K-AMI의 준거타당도를 지지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남성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시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남성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번역 및 타당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이 한국인의 남성애에 대한 태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즉, 한국인의 남성애에 대한 태도에도 양가적인 속성이 있음을 밝혔는데 그 의의가 있다. K-AMI를 사용하여 기존에 알려진 여성애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남성애에 대한 태도도 측정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성별갈등을 개념화하고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K-AMI의 준거타당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높은 남성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우울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개인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여성애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남성애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K-AMI는 상담과 교육장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가령, 젠더관련 문제로 힘들어하는 여성 내담자를 상담할 때, K-AMI 문항을

활용하면,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남성
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고, 그러한 태도가 자
신의 심리 상태(예, 우울)와 대인관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남성 내담자와의 상담에서도 K-AMI를
사용하여 남성에 대한 태도가 어떤 양상을 보
이는지, 만약 적대적 태도가 높다면, 어떤 과
정으로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재
화하였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어려움(예,
우울)을 겪고 있는지 탐색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둘째, 내담자의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온정적인 태도 점수의 패턴에 따라 상
담 개입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낮고 남성에 대한 온정
적인 태도만 높은 여성 내담자의 경우, 남성
에게 의존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나 남성에게
애정과 돌봄을 주는 존재여야 한다는 의무감
을 느끼고 있는지 살펴보고, 인지행동치료나
여성주의 치료를 활용하여, 내담자가 내면화
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구
와 가치관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는 낮고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만 높은
남성 내담자의 경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는 점을 고려하여, 인지행동치료나 여성주의
치료를 통해, 좀 더 유연하고 양성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겠겠다. 반대로, 남성에 대한 온정적인 태
도는 낮고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만 높은
내담자와 상담 할때는, 남성 중심적인 제도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분노가 또 다른 혐
오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도울 필요가 있겠다.
셋째, 최근 연구자들은 성차별과 성별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젠더감수성 프로그램과 양성
평등 감수성 훈련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어
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정재원, 이은아,
2018), K-AMI의 문항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도록 돕는데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
으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 대부분이 대학생
을 포함한 20~30대라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
성별 갈등의 주축이 되는 연령이 20~30대 성
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남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40대 이상의 성인
들에게 일반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연령대의 표본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K-AMI 총점과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우울과 상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구체
적으로 어떤 심리적 경로를 통해 K-AMI 총점
과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우울로 이어
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선
행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낮은 효능감, 반
추, 대인관계 문제 등이 K-AMI 총점 및 남성
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우울간의 관계를 매
개하는지 분석해 볼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
에서는 원칙도인 AMI의 20문항 중 4문항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가
진 남성에 대한 태도 양상과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에, 후속 연구
에서는 문화비교 연구를 통해 문화별로 남성
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K-AMI의 문항 일부가 이
성애자들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어(예, ‘모든

여성은 사랑하는 남성이 있어야 한다'), 성소수자들의 남성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K-AMI의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성소수자들의 남성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남성애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타당화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양성평등의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남성애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K-AMI는 남성애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앞으로의 성별갈등, 젠더 관련 편견을 수행하고 여러 정책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여러 문화 집단(예,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 중 한 가지만 측정하던 기존의 척도와 달리 양가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 개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강현철 (2013). 구성타당도 평가에 있어서 요인분석의 활용. *대한간호학회지*, 43(5), 587-594.

김경희, 김은하 (2019). 양가적 성차별주의 점화가 여자 대학생의 자기대상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4), 337-358.

김재은, 김지현 (2016).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 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상담학연구*, 17(1), 187-205.

김정은, 최승미 (2019). 남녀대학생의 여성혐오 경험에 대한 연구: FGI를 통한 질적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7(3), 129-167.

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고재홍, 이선이, 최인철 (2005).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 하위 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3), 117-133.

류연규, 김영미 (2019). 한국사회 젠더갈등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6(4), 131-160.

박대아 (2018). 남성혐오표현의 유형과 사용양상. *우리어문연구*, 62, 273-304.

박무늬, 민혜영, 장태훈 (2019). 청년 세대(20~30대) 남성의 여성 혐오 인식에 관한 연구: 강남역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일반*, 27(1), 85-111.

서윤정, 박지선 (2013).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7(1), 33-59.

서원진, 이수민, 김미리혜, 김계중 (2018).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의 현황과 제언: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1), 177-193.

안상수, 김인순, 이정현, 윤보라 (2015). 남성의 삶에 대한 기초연구: 청년층 남성의 성평등 가치 갈등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 19(2), 39-66.
- 유계숙, 조선아, 강민지 (2017). 여성혐오의 개념과 심리·사회적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7(5), 274-274.
- 이미나 (2019).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부정적 기사도가 여고생들의 행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이상적 배우자상과 외모관리행동. *시민교육연구*, 51(4), 241-272.
- 이승원, 서영석 (2018).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 향상 및 임파워먼트를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1067-1099.
- 이재경 (2013). 한국사회 젠더 갈등과 '사회통합'. *저스티스 통권*, 132(2), 94-109.
- 이종임, 홍주현, 설진아 (2012). 트위터에서 나타난 미투(#Me Too)운동과 젠더 갈등이슈 분석: 네트워크 분석과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34(2), 99-146.
- 정재원, 이은아 (2018). 대학생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젠더 트레이닝: 여성학 교양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2(5), 11-35.
- 조선아, 유계숙 (2018). 서울시 남자대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여성혐오에 미치는 영향: 결혼의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0(1), 86-119.
- Barreto, M., & Ellemers, N. (2005). The burden of benevolent sexism: How it contributes to the maintenance of gender inequaliti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5(5), 633-642
- Chapleau, K. M., Oswald, D. L., & Russell, B. L. (2007). How ambivalent sexism toward women and men support rape myth acceptance. *Sex Roles*, 57, 131-136.
- Costello, A. B., & Osborne, J. W. (200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recommendations for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and Evaluation*, 10(7), 1-9.
- Dardenne, B., Dumont, M., & Bollier, T. (2007). Insidious dangers of benevolent sexism: Consequences for women's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5), 764-779.
- De Winter, J. C. F., & Dodou, D. (2012). Factor recovery by principal axis factoring and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as a function of factor pattern and sample size.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39(4), 695-710.
- Dumont, M., Sarlet, M., & Dardenne, B. (2010). Be too kind to a woman, she'll feel incompetent: Benevolent sexism shifts self-construal and autobiographical memories toward incompetence. *Sex Roles*, 62(7-8), 545-553.
- Eagly, A. H., & Mladinic, A. (1989). Gender stereotypes and attitudes toward women and 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4), 543-558.
- Eagly, A. H., & Mladinic, A. (1994). Are people prejudiced against women? Some answers from research on attitudes, gender stereotypes, and judgments of competence.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5(1), 1-35.
- Fiske, S. T., Cuddy, A. J. C.,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878-902.
- Glick, P., Diebold, J., Bailey-Werner, B., & Zhu, L. (1997). The two faces of Adam: Ambivalent sexism and polarized attitudes toward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12), 1323-1334.
- Glick, P., Lameiras, M., Fiske, S., Eckes, T., Masser, B., Volpato, C., Manganelli, A. M., Pek, J. C. X., Huang, L., Sakalli-Ugurlu, N., Castro, Y. R., Pereira, M. L., Willemsen, T. M., Brunner, A., Six-Materna, I., & Wells, R. (2004). Bad but bold: Ambivalent attitudes toward men predict gender inequality in 16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5), 713-728.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Glick, P., & Fiske, S. T. (1997).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Measuring ambivalent sexist attitudes toward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1), 119-135.
- Glick, P., & Fiske, S. T. (1999). The ambivalence toward men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beliefs about 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3(3), 119-135.
- Glick, P., Fiske, S. T., Mladinic, A., Saiz, J., Abrams, D., Masser., et al. (2000). Beyond prejudice as simple antipathy: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cross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763-775.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Hellman, M. E., & Wallen, A. S. (2010). Wimpy and underserving of respect: Penalties for men's gender-inconsistent succes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4), 664-667.
- Jetten, J., Branscombe N. R., Iyer A., & Asai, N. (2013). Appraising gender discrimination as legitimate or illegitimat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In R. M. Branscombe (Ed.), *Handbook of Gender and Psychology* (pp. 306-322). London: SAGE Publications.
- Jezini, A. T. (2013). Acculturation, marianismo gender role, and ambivalent sexism in predicting depression in Latina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 Jost, J. T., & Banaji, M. R.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1-27.
- Manzi, F. (2019). Are the processes underlying discrimination the same for women and men? A critical review of congruity models of gender discrimination. *Frontier in Psychology*, 10, 469.
- Nosek, B., & Banaji, M. B. (2002). The go/no-go association task. *Social Cognition*, 19, 625-664.
- Renzetti, C. M., Lynch, K. R., & DeWall, N. (2015). Ambivalent sexism, alcohol us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3(2), 183-210.
- Richeson, J. A., & Ambady, N. (2001). Who's in charge? Effectors of situational roles on automatic gender bias. *Sex Roles*, 44, 493-512.
- Sidanius, J., & Pratto, F. (1999). *Social dominance:*

- An intergroup theory of social hierarchy and oppress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phan, C. W., Stephan, W. G., Demitrakis, K. M., Yamada, A. M., & Clason, D. L. (2000). Women's attitudes toward 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 63-73.
- Sue, D. W., Capodilupo, C. M., Torino, G. C., Bucceri, J. M., Holder, A. M. B., Nadal, K. P., & Esquilin, M. (2007). Racial microaggression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62(4), 271-286.
- Szymanski, D. M., & Kashubeck-West, S. (2008).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oppressions and lesbian and bisexual women's psychological distres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 575-594.
- Vandello, J. A., & Bosson, J. K. (2013). Hard won and easily lost: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ory and research on precarious manhood.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4(2), 101-113.
- Yoder, J. D., & Lawrence, C. L. (2011). Are gender differences in self-reported rumination explained by women's stereotyping?. *Sex Roles*, 65(1-2), 94-101.

논문 투고일 : 2020. 09. 04

1 차 심사일 : 2020. 09. 09

게재 확정일 : 2020. 11. 23

Research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mbivalence toward Men Inventory

Eunha Kim

Hyun Ji Kim

Ajou University

As the attitudes toward women is ambivalent (both hostile and ambivalent), people have a tendency to have ambivalent attitudes toward men. Despite conflicts between men and women caused by misogyny and misogyny have recently worsened in a Korean society, most of previous Korean studies have focused on the attitudes toward women. In addition, there has been no scale to measure such ambivalent attitudes toward men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was designed to translate and validate the Ambivalence toward Men Inventory, a scale developed and currently utilized in the United State. Sample 1 (183 college students), sample 2 (300 college students), and sample 3 (317 adults) were used.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resulted in 16 items and 2 factors. The tests of convergent and concurrent validity revealed strong evidence for the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mbivalence toward Men Inventory and the reliabilities of the two factors were .830 ~ .917.

Key words : Ambivalent attitudes toward men, factor structure, validity, reliability